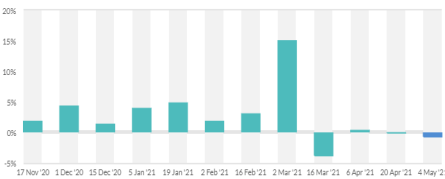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시세 소폭 하락

- 전장대비 0.7% 하락...서유럽 수출가격도 일부 하락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08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148
Number of Bidding Rounds	17	Quantity sold (MT)	22,020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2:07	Minimum Supply (MT)	20,280
Minimum Supply (MT)	20,280	Maximum Supply (MT)	23,630
Maximum Supply (MT)	23,630		

지난 5월 4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0.7% 떨어지며 2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격 지수도 1,290포인트로 전장대비 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버터가 톤당 5,035달러(약 566만원)로 전장대비 12.1%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상승세를 이어가던 체다치즈도 4.5% 하락하며 톤당 4,274달러(약 481만원)를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분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탈지분유는 톤당 3,433달러(약 386만원)로 2% 올랐고, 전지분유도 0.7% 상승하며 톤당 4,115달러(약 462만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며 가정용 버터 수요가 줄어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유제품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은 2주전 대비 버터와 전지분유는 각각 1%, 0.5% 떨어진 반면, 탈지분유는 0.4%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5월 4일, USDA, 4월 16일자 >

[마케팅] 아일랜드 낙농가, 목장내 우유 자판기 호응

-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자판기로 하루 평균 200~400리터 우유 판매



코로나19 이후 영국에서 우유 자판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일랜드도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우유 자판기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한 낙농가는 목장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을 사용해 직접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해당 농가는 저온살균기와 냉각기를 보유하고 있어 매일 아침 6시 직접 착유한 우유를 즉시 저온살균과 냉각 처리를 거쳐 착유 후 3시간 이내에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목장은 일주일에 6일간 자판기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200~400리터의 우유는 물론 밀크셰이크 판매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목장의 신선한 우유를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rte.ie, 5월 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